

말랭이마을에 봄이 왔어요 꽃 피는 봄, 봄을 요리하다

군산시, 매일 마지막주 토요일 골목잔치 총 8회 진행

말랭이 마을의 작가들과 마을 주민, 관광객이 모여 하나가 되는 골목 잔치가 열린다.

군산시는 오는 25일 말랭이 마을에 올해 처음 진행되는 골목 잔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골목잔치는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신동동 말랭이마을 일원에서 매일 마지막주 토요일 총 8회 실시될 예정이다.

이름부터 생소한 말랭이 마을은 최근 군산의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곳으로 산비탈 산봉우리 맨 끝이라는 뜻을 지닌 말랭이 라는 이름처럼 월명산 자락의 끝 산비탈에 서로의 등을 기고 다다다 봄은 집들이 옛 모습을 간직한 곳이다.

좁은 골목을 돌아가면 모던하게 꾸

며진 현대적 건물들이 조화롭게 깃들여 있어 어느 것 하나 모나지 않게 시대를 품고 있는 풍경이다.

코볼 꼬불길을 따라 말랭이마을을 둘러보려면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그때의 추억을 전사하는 추억전시관이 있고 마을 어르신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마당이 있다.

골목 잔치가 진행되는 이야기마당 및 책방에는 현재 입주되어 있는 작가들을 만나러 온 관광객들이 있다. 골목 잔치에는 기존 각자의 공간이 아닌 한 공간으로 이동해 말랭이마을에 거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마을에 활기가 느껴지면서 토박이 마을 어르신들은 이들의 입주를 반기고, 그들과 함께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청년 마을 술 익는 마을을 계기로 시작된 마을 어르신들의 술 빛는 주말이다.

골목 잔치뿐 아니라 매주 운영되는 술 빛는 주말은 말랭이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말랭이마을 골목잔치에서 봄을 느끼고 옛 추억도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훈훈한 정도 느낄 수 있는 힐링 체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기자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손님맞이 준비 한창

익산시, 27일~ 다음달 28일 숙박업소 · 음식점 · 카페 2차 위생 점검 실시

익산시가 오는 5월에 개최되는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를 대비해 안전하고 친절할 손님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1만여 국내의 많은 관광객들이 익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 관리점검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경기장 및 숙박업소 주변 식당·카페 80여 개소에 대한 2차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위생 점검은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5

주간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햄버거, 어묵꼬치 등 조리음식에 대한 수거검사 또한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 식재료, 종사자 개인위생 등 위생 △냉동·냉장 제품 적정온도 기준 준수 및 소비기한(유통기한) 영입자 준수 여부 △무신고 영업행위 및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이 밖에도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해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영업주가 스스로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을 당부

했다.

시 관계자는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마무리를 위해 경기장 및 숙박업소 주변 식당·카페에 대한 이중 점검을 위해 2차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며 "식품 위해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식품안전관리에 힘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관내 대표음식점 51개소에 대하여 1차 위생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방문의 해' 기차타Go 봄업!... '봄 설렘' 관광상품 출시

호남철도관광 익산시가 코레일과 공동으로 기차타고 설레는 봄맞이 열차 관광상품을 선보이며 '익산방문의 해' 활성화에 나섰다.

시와 코레일은 익산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전용버스와 열차 운임을 할인하는 맞춤형 열차 관광상품 '익산 봄나들이 설렘패키지'를 출시했다.

기차를 이용하는 개별·소규모 여행객들이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서울에서 1시간10분 정도(KTX 기준)거리인 장정과 최근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은 SNS 인스타그램을 결합해 차별화를 두었다.



'봄나들이 설렘' 전체코스는 익산역에서 출발해 나비위성당 고스락 및 이화동산(종식), 아가페정원, 미륵사지, 구룡마을 대나무숲, 눈물재 카페를 돌아 익산역으로 돌아온다.

관광객들은 전용버스를 타고 꽃과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아가페정원과 고

스락을 만날 수 있다. 고스락은 4000여개로 이루어진 장독대 정원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이화동산에서는 수제떡갈비까지 점심으로 즐긴다.

특히 아가페정원은 최근 인스타그램으로 떠오르며 메타세쿼이아길의 인생샷이 일품이다.

또한 익산여행의 정수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륵사지'와 고즈넉한 산책길의 '구룡마을 대나무숲'까지 함께 여행할 수 있다. 마지막 코스로는 SNS에서 예쁜 카페로 유명한 '눈물재'까지 들린다면 봄과 설렘이 있는 익산여행이 완성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음식식품교육문화원, 파스타 · 판나코타 만들기 교육

익산시는 익산역 앞에 있는 음식식품교육문화원에서 3월 원데이 클래스(요리교실)를 지난 20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리교실은 음식식품교육문화원 2층 청년공유주방에서 팡스 파스타를 운영하는 오승영 청년 시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부부 연인, 친구 등이 2인 1팀으로 총 8명이 참여, '꽃피는 봄 봄을 요리하다'를 주제로 봄에 어울리는 부드러운 크림파스타와 꽃을 활용하여 이탈리아 푸딩인 판나코타를 만들었다.

요리교실에 참여한 시민들은 클래스가 끝난 후, 음식식품교육문화원 3층 테라스에서 본인이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보고 대화를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요리교실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매달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요리문화가 있는 날, 1시민리피교육, 창업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승영 청년공유주방 시장은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청년공유주방에 들어와서 외식업 창업을 하고, 좋아하는 요리로 감사의 기회를 가지는 등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임용식·간담회 가져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 7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20일 오후 예술의전당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임용식에서 공직자로서 첫발을 내딛는 정책지원관 7명은 선서문을 낭독하고 임용장을 받았으며, 함께 참석한 익산시의회 의원들과 신규 임용자들의 가족,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며 격려했다.

최종오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익산시의회의 가족이 된 정책지원관들을 환영한다"면서 "공무원으로서 또 시의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의원들과 선배 동료들과 합심하여 익산시의회에 새바람을 일으켜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이로써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임용된 5명의 정책지원관에 이어 이번에 7명을 추가로 채용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정책지원관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임용식에 이어 21일 오후 최종오 의장은 정책지원관 총 12명과 간담회를 통해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이 익산시의회의 의정역량을 한층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익산발전과 시민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지역 소식통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장 인센티브 지급

익산시가 지역 사업자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1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제는 사업장에서 지난해와 올해의 음식물류 폐기물 증감량을 평가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한 우수 사업장에는 감량률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50L)를 최고 30매까지 차등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지난해 월평균 0.5톤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장이며, 참여기간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1일까지 익산시 홈페이지 민원서비스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청소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익산=이재춘기자

재경군산시민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개최

군산시는 재경군산시민회가 지난 17일 서울시 구로구에서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개최하고 기존 '재경군산시향우회'에서 '재경군산시민회'로 새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날 박성현 회장에 이어 빈원영 신임 회장 선임으로 사무실 이전과 함께 명칭 변경이 이뤄졌다.

이날 재경전북도민화와 시 향우회 간 교류 확대와 일체감 향상을 위해 변경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시영 전 회장을 비롯한 고문, 부회장, 임원 등 재경군산시민회원 5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개소식에 이어 향우 간 화합의 시간을 가져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재경군산시민회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하는 등 고향 사랑을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을 보냈다.

제5대 빈원영 회장은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3월 내 임원 및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4월 총회 및 취임식을 치른 후 안정적인 새출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시보건소, 2023년 출산육아교실 운영

군산시가 예비부모와 신혼부부들에게 건강한 출산을 지원한다.

군산시보건소는 예비부모와 신혼부부들에게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행복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8일 모유수유교실을 시작으로 출산육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유수유교실은 3~11월 (셋째주 화요일 10:30~12:00) 연 10회에 걸쳐 전문 강사를 초빙해 모유수유 자세, 올바른 젖 물리기, 마사지 등 모유수유 지도를 대면교육으로 진행한다.

출산육아교실은 4, 6, 10, 11월 (매주

목요일 10:30~12:00) 5주간 비대면교육으로 진행. 주차별로 △태교와 순산운동 △출산과 순산요가 △모유수유 △육아교실 △친환경 아기용품 만들기 주제를 가지고 운영된다. 참여자는 모바일, 노트북 등을 이용해 Zoom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강의 링크를 전송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예비·신혼부부, 출산 60일 이내 출산부 중 건강한 임신과 출산, 양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군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